

[QT 세미나]

묵상속에서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1)

이상규 목사 / 2000/ 페이지수: 2

즉 오늘날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개인적으로 “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3년 제자훈련”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의 증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공이라 할 만큼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지식의 피상성과 단편성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보았다.(마 16:14). 너무도 편협하고 피상적이다. 아니,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5-16).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곧이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꺾을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이에 대해 격렬히 저항하고 나선다. 결국 베드로의 예수님에 관한 의식도 주님의 갈릴리 사역만을 경험한 지극히 좁은 관점이었음이 폭로된 것이다. 아, 그리고 이렇듯 예수님에 관한 단편적인 인식은 얼마나 심각한 책망을 초래했던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마 16:23).

물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전모를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기로부터 공생애 및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해는 전반적으로 여전히 피상적이고 웅졸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이러한 느낌이 70~80년대를 기점으로 확산된 기독교 세계관운동을 통해 예수님이 개인의 구주(Savior)일 뿐 아니라 삶의 전영역의 주님(Lord)이심을 고백하게 되었고, 한국교회에 불어온 제자훈련바람을 타고 성경공부가 성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공부를 제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앙금처럼 남아있는 느낌이고 보면 무언가 분명 감추어진 문제가 있음직하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필자는 이것을 ‘피상성’과 ‘단편성’의 문제라고 본다.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공부하되 피상적이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되 단편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를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훈련이 얼마나 강력한 방법이었는데 대한 이해부족과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 본연의 깊이로 경험할 수 있는 묵상-관상(contemplation)원리에 대한 훈련 부족이었다고 본다.

묵상의 주도권 싸움

다시말해 팔레스틴 땅에서 12제자를 불러 3년동안 함께 먹고 자며 가르치신 예수님의 제자훈련이란 (언젠가 필자가 이 지면에 썼던 것처럼) 수천년의 유대주의가 골수에 사무치도록 박혀 주야로 그 사상만을 묵상하고 그 관점에 사로잡혀 노예처럼 살아가던 열두남자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상과 말을 아로새겨 주야로 묵상시키며 말하고 행하게 하려는 목숨을 건 묵상의 주도권 싸움이었다고 볼 때, 그것은 오늘날 일주일에 한 두 번 만나는 제자훈련이나 복음서에 관한 귀납법적 성경공부 정도의 그분로는 결코 그 실체를 포착하기 어려운 심해어(深海漁)와 같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늘날 우리가 주후 1세기 당시 예수님의 생애 및 제자훈련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을까? 2000년전 팔레스틴은 오늘날 우리와 시공간적으로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 게다가 선생되신 예수께서는 이미 승천하셨지 않은가?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예수께서 부재하신 이 사실이 오히려 시공간의 차이를 뛰어넘어 예수님 당시 제자훈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 모든 비밀은 예수께서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성령”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예수 그리스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보혜사 성령)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 16:7)

또한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중 하나”라고 했던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는 이 “성령”안에서 개인적으로 “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3년 제자훈련”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출처 : Q T 신 문 (2000. 3. 26)